르네 지라르의 욕망이론으로 본 양영순의 『천일야화』

I. 서론
II. 천일야화의 모방적 욕망구조
III. 천일야화의 갈등해소 과정 : 다섯 에피소드의 의미 분석
IV. 결론 : 희생제의적 비극이 주는 카타르시스 효과
참고문헌
Abstract

장은영

초 록

양영순의 『천일야화』는 작가 자신에게도 첫 장편 극화라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우리나라 만화계에도 웹환경에 최적화된 양질의 웹툰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원작과 차별적으로 재구성된 『천일야화』의 의미구조를 르네 지라르의 모방 욕망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설명해 보고자 했다.

작가는 매일 여성을 죽이는 왕, 샤 리야르의 수수께기와 같은 내면을 선왕과의 비교의식 위에 진짜 꿈을 잃고 왕비의 사랑이라는 잘못된 대상 추구에 빠져있던 어리석음으로 드러내고, 이와 대비되어 세라자드의 희생정신과 지혜를 보여주었다. 샤 리야르는 세라자드가 들려주는 다섯 이야기를 겪으며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부정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던 이들에 대한 감사와 원래의 꿈을 되찾았다.

양영순의 『천일야화』는 인간의 어리석고 어두운 측면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결말부분에 가서는 주인공인 샤 리야르가 그 값을 치루는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었던 세라자드가 낳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샤 리야르가 방황가운데 되찾은 꿈이 이루어지는 보완적인 완결을 이루었다.

주제어 : 양영순, 천일야화, 1001, 르네 지라르, 모방욕망, 희생양 메커니즘

Ⅰ. 서론

1. 목적

양영순은 2004년 7월 14일부터 2005년 9월 2일까지 약 14개월간 파란닷컴의 웹툰 코너인 '엔타민(ntamin.paran.com)'에서 140회에 걸쳐 웹툰 <1001>[1]을 연재했다. <1001>은 아랍 고전의 구비문학인 『아라비안나이트』를 배경으로 했지만, 내용면에서 작가의 창조적인 개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점[2]과, 형식면에서 한국형 웹툰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3] 의미 있는 작품이다. 연재 종료 이후<1001>은 『양영순의 천일야화』[4]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는데[5], 본고에서는 작품의 형식과 스타일보다 내용의 유기적 분석을 논하고자 하므로 자료제시가 용이한 단행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천일야화』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요소는 개작된 내용의 역동성이다. 사실 <1001>이 연재되기 시작한 2004년에는 공교롭게도 순정만화잡지 《윙크》에서 전진석 · 한승희가 각색한 <천일야화>가 연재되기 시작하여 2006년 하반기에는 '오늘의 우리의 만화상'을 수상할 만큼 호응을 얻었다. 역시 2004년, 『리니지』로

---

1) 『아라비안나이트』의 원제는 아랍어로 『Alf Laylah wa Laylah(천 한 개의 밤)』이므로, 양영순의 웹툰 《1001》의 제목은 원제의 국내 번역제목인 '천일야화(千一夜話)'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다. 『Alf Laylah wa Laylah』는 전체가 하나의 큰 틀 속에 있는 이야기로, 주요 이야기 180편에 100편의 짧은 이야기가 곁들여진 복합적인 구성을 보인다. - 김봉례, "『천일야화』의 이야기 형식과 서술구조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아랍이슬람학과 석사논문, 2000, pp.1~2 참조.

2) '연재 당시 하루 방문객 30만명, 리플 10만 개, 온라인 만화의 신화'라는 보도자료가 붙은 작품 - 정형모 기자, "새 작품 '천일야화' 출간한 만화가 양영순", 『중앙일보』, 2006년 11월 13일
'이 작품은 마신과 마신 사냥꾼이란 이질적 존재를 구현해낸 카리스마 넘치는 그림과 『천일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 라인으로 젊은 독자들을 열광시켰다.' - 장상용 기자, "천일야화, 21세기판 아라비안나이트", 『일간스포츠』, 2006년 11월 24일

3) 먼저 형식에 있어서는 세로 스크롤의 시간성을 잘 활용한 말칸, 한 칸 안에서의 시간변화와 공간변화를 극대화하여 보여준 점, 동선과 칸의 세로배열 문제로 난제로 여겨졌던 웹에서의 액션 장면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 백은지, "웹툰 만화연출 연구", 상명대학교 만화영상학과 석사논문, 2009, pp.84~90 참조.

4) 이하 『천일야화』로 표기

5) 양영순, 『양영순의 천일야화 (1-6권)』, 김영사, 2006

유명한 작가 신일숙이 『아라비안나이트』를 만화 단행본 시리즈로 내는 등 소재와 등장시기가 겹치는[6] 유력한 만화 작품들이 줄을 이었다.

세 작품 중 신일숙의 작품은 원작에 가장 가까운 작품으로, 고대의 세계관 역시 거의 변형되지 않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달된다. 때문에 절대군주인 샤 리야르[7]의 파괴적 행위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약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야기가 구성된다기보다 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세헤라자드가 펼치는 이국적인 이야기의 화려함과 재미가 강조되었다. 반면 전진석·한승희의 『천일야화』는 세헤라자드가 남자라는 파격적인 설정 아래 원작과 다른 이야기들, 이를테면 풋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이야기나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 등 외부의 이야기들을 작품 주제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 작품은 처녀들을 죽이는 샤 리야르의 행동을 어머니와 관련된 심리적 외상이 왕비의 불륜이라는 특정 계기를 통해 발현된 것으로 설명한다. 때문에 사랑과 폭력이 뒤엉킨 정신병적 곤란을 겪는 샤 리야르가 세헤라자드를 통해 치료되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양영순의 작품은 전진석·한승희의 작품과 유사하게 샤 리야르의 문제적 행위에 대해 현대인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작가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가는 방식을 지양하고, 주어진 내용을 통해 독자가 적극적으로 의미를 합성해가도록 '미학적 거리'[8]를 주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첫째로, 작가가 선과 악, 사랑과 폭력을 이분법적인 대립항으로 다루

---

6) 『아라비안나이트』를 소재로 한 만화가 거의 동시에 나온 것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홍은영, 가나출판사, 2001)가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출판계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유사한 고전소재를 발굴하려고 기획했음을 보여준다.

7) 샤 리야르 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나, 샤가 이미 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샤 리야르로 명칭을 통일한다.

8) '미학적 거리'는 예술이 악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선에 이르는 것이라는 이해에서 나온 개념으로, 작품을 접하는 이가 증오와 대립, 우을증과 폭력, 복수 등 편재해 있는 부정성(negativity)을 스스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인 거리를 말한다. - 권택영, 「한국문화에 나타난 우울증과 폭력: 최근 서사를 중심으로」, 『Oughtopia Source』 v.22 no.1(2007), pp.149 - 168 참조.

기보다 양면성을 가진 짝패(le double)로 다루고, 둘째로, 세라자드[9]의 이야기를 통해 샤 리야르 개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 간의 차원도 인식하도록 하여 인간 존재의 복합적인 현실성을 구성해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양영순의 작품에 드러난 미학적 거리주기를 파악함에 있어, 문학 비평가이자 문화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1923)의 이론을 경유하고자 하는데, 이는 우선 르네 지라르가 욕망의 짝패를 이루는 폭력의 부정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이에 더하여 이 폭력이 사회적으로 번져가는 메커니즘과 이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제가 사용되었는지 모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 『천일야화』의 의미 구조를 되짚어보고,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주는 카타르시스가 어떤 맥락의 것이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르네 지라르의 이론은 소설 속 인물들이 어떻게 욕망하는가에 대한 욕망의 구조분석에서부터 출발하여[10], 이 근본적인 욕망구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 파괴적인 폭력을 막기 위한 '희생양 제의'나 사법제도 등 인간사회가 고안한 예방적 차원의 폭력에 관해 인류학적 예를 통해 밝혀 나갔다[11]. 즉, 작품에 드러난 인간의 욕망구조를 인류학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의 본성을 밝히고자 한 학문궤도를 보였다. 이후에는 기독교를 통한 희생양 메커니즘의 해체를 시도했는데[12],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천일야화』작품분석을 위해서 모방욕망과 희생제의를 중심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

9) 보통은 세헤라자드로 불리나 양영순의 작품에서는 '세라자드'로 표기되고 있다.

10) René Girard,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Grasset, 1961, 국내 번역서로는 '김치수 · 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이 있다.

11) René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é*, Grasset, 1972, 국내 번역서로는 '김진식 ·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2009'이 있다.

12) René Girard, *Le Boucémissaire*, Grasset, 1982, 국내 번역서로는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이 있다. 지라르의 이후 저술이 대부분 희생양 메커니즘의 허상을 드러내고 해체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1) 모방욕망 (désir mimétique)

욕망에 대하여 르네 지라르는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대상 사이는 직선적이지 않고, 매개자가 끼어들어 삼각형의 구도를 그린다고 설명한다. 매개자(médiateur)는 주체에게 욕망의 암시를 준 제 3자이며 욕망의 모델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주체가 대상에 대해 자발적인 욕망을 품는다는 생각은 착각이며, 실제적으로 주체가 품는 욕망은 '모방적 욕망'이라는 것이다. 이 모방적 욕망의 이면에는 자신보다 우월한 모델을 모방함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형이상학적 욕망(désir métaphysique)'[13]이 있다.

삼각형을 이루는 이 욕망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매개자, 즉 모델이다. 모델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주체와의 '차이'가 분명할 때는 모방하는 주체가 매개자를 모방하는 자신의 모습을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14] 그러나 모델과 주체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고 서로 접근하게 될수록, 모델은 주체와 같은 대상을 사이에 둔 경쟁자가 되어 방어적이 되고, 서로 대상을 갈구하는 욕망의 강도도 증대된다.[15]

2) 짝패 (le double)

욕망의 매개자와 욕망의 주체가 극도로 가까운 거리가 있을 때에는 본보기와 장애물이라는 중개자의 이중의 역할이 극대화되면서 선망과 증오, 경쟁과 존경 등 양가적인 감정이 격렬해진다. 이 과정에서 둘은 같은 대상을 둔 '상호 매개'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둘 사이의 차이는 소멸하게 된다. 지라르는 이와 같이 주체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극도로 가까워져 주체의 분신과도 같이 된 중개자를 '짝패' 혹은 ' 사회적 쌍둥이 '라고 부른다.[16]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항상 폭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짝패의 출현은 곧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

---

13) 르네 지라르 저, 김치수 · 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pp.153~158, pp.367~375.
14) 르네 지라르 저, 김치수 · 송의경 역, 위의 책, pp.39~43.
15) 르네 지라르 저, 김치수 · 송의경 역, 위의 책, pp.139~152.
16) 르네 지라르, 김진식 ·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9년, pp.236~242.

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된다.[17] 즉, 차이가 소멸되고 짝패가 만들어지는 상황은 지속적이고 확대되는 갈등으로 인해 상호적 폭력(la violence réciproque)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이것은 한 사회 공동체 전체에 위기상황을 초래한다.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3) 희생양 메커니즘 (le mécanisme de la victime émissaire)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갈등을 순화시킬 수 있는 '좋은' 폭력을 통해 위기를 일으키는 '나쁜' 폭력을 대체하는 것이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위기에 빠진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단 하나의 희생물로 대치되어 '모두 함께' 그 희생물을 희생시키는 양태를 보인다. 희생제의는 차이 소멸로 생성된 극단의 무질서와 폭력의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출시키는 일종의 '대체 폭력'으로 위기에 빠진 집단을 내적 폭력으로부터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사법제도가 없는 사회에서 희생제의는 예방적 기능도 가진다. 이런 희생제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첫째로,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희생의 성격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위기의 원인이 애초에 희생양에게 있었다고 막연히 생각하며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장일치의 폭력으로 희생될 희생물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하나는 그들 중의 하나여야 하며, 동시에 또 다른 폭력이 도발되지 않도록 복수(復讐)가 불가능해야 한다. 때문에 희생이 행해지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희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존재는 대부분 공동체와 외부 세계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존재이다.[18]

---

17)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절반 이상을 원시 사회에 대한 여러 민족학적 자료들과 신화에 나타난 차이소멸과 그로 인한 위기를 상징하는 테마들을 발견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지라르는 이 과정에서 모든 금기도 차이소멸과 폭력적 상호성과 관련되어 유사성을 가진 자들이 상호적 폭력 모방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보았다.

18) 김모세 저, 『르네 지라르 ;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2008, pp. 180~188.
"희생양에 대한 집단 전체의 폭력은 한 공동체가 파멸에 이르지 않고 번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의 단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문제는 이러한 희생제의를 과연 ‘좋은’ 폭력 혹은 필요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이다. 폭력으로 폭력을 무마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지 본질적인 해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희생양 매커니즘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세월동안 반복되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희생양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거짓된 왜곡작업이 행해져 사건의 본질적 양상을 가리기 때문이다.

첫 번째 왜곡작업은 무고한 자에게 갈등의 책임, 그것도 집단 전체를 둘러싼 위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왜곡작업은 집단적 폭력과 희생제의가 행해지고 난 뒤, 희생물이 사회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존재로 신성화되는 역설적인 방향을 가진다. 두 방향의 왜곡을 통하여 희생양 매커니즘은 근원적인 폭력성을 성스러움과 이접시키고, 숭고의 미학적 체험, 혹은 카타르시스라는 정념의 순화까지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양영순의 『천일야화』는 왕의 강박적이고 폭력적인 복수의 원인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고 원인을 추정해가도록 파편적으로 배치했다. 때문에 원인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동을 유발하는 욕망에 대해 분석한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왕과 세라자드의 내부적 이야기의 외부에서 진행되는 삼촌의 왕위찬탈음모와 그 외부의 동방제국 첩자 이맘의 이야기 등 겹겹이 쌓여 있는 폭력의 구조와 작품의 결말의 관계에 대하여 ‘희생양 제의’ 이론을 통해 유기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천일야화의 모방적 욕망구조

1001이 원작에서 가져온 내용은 왕비의 외도로 상처입은 왕이 이후 매일 밤 한 명의 처녀를 취하고 다음날 처형한다는 모티브와, 이 일을 감당하는 신하의 딸 세라자드가 동생 두나쟈드와 함께 왕 앞에 나아가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고 왕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기본구조이다.

에서 지라르는 희생양에 대한 폭력을 ‘초석적 폭력(violence fondati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p.182.

그러나 1001은 기존의 천일야화가 왕비가 불륜을 저지르는 외부적인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샤 리야르의 꿈에서부터, 즉 그의 내부에서부터 전개되면서 기존 작품과 전혀 다른 양상의 서사를 진행하게 된다. 양영순 만의 창조적인 개작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최면상태에서 이야기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는 '이야기 요법'이라는 개념, 둘째, 타자로서의 마신의 개념정립, 셋째, 샤 리야르의 문제와 직결된 다섯 개의 에피소드 등이다.

매일 처녀들을 죽이는 샤 리야르의 문제적 행동은 겉으로 볼 때, 왕비의 배신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리야르 왕의 욕망 구조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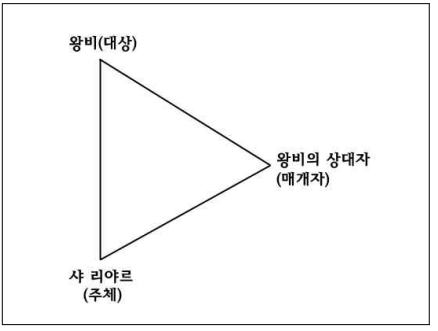

표 1. 샤 리야르의 표층적 욕망구조

샤 리야르는 왕자로서 균형 잡힌 훈련을 성실히 받고 이야기책을 좋아하며 연약한 자를 지켜주는 성품[19]의 사람이었다. 또 왕으로서도 성군[20]이라는 평판을 받았었다. 그런 샤 리야르의 균열이 일어난 기폭제는 왕비의 외도였다. 부인의 불륜은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21] 그러나 샤 리야르의 원래 성품과 사건 자

19) 『천일야화』 1권 pp.52-61.

20) 『천일야화』 6권 p.169.

21) (독일문학에서도) 파트너의 외도를 포함하여 질투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의 결말은 파트너와의 이별, 살인, 자살, 복수, (영원한)비밀의 탄생, 정신병에 걸림 등의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러나 그 복수가 여성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 이승진 외, 『독일문학의 모티브 DB구축』, 공감, 2010, p.457 참조.

체의 규모에 비해서 보복이 무차별적이고 정도가 심하며 지속적이다. 때문에 표면적 사건 이면에 다른 원인이 중첩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 그때부터야! 내가 궁을 비운 사이, 왕비가 내 침실로 다른 사내들을 끌어들인… 그때부터야! 그 망할 계집이 내 침실을 욕보이면서부터야!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왕국 여기저기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지! 제 계집 하나 간수 못하는 주제에 왕국을 다스린다고… 심지어 저잣거리의 아이들마저 날 조롱하며 노래하더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나라 백성 모두가 날 비웃었어! 그래서 닥치는 대로 계집들의 목을 날렸지! 배신감에, 모멸감에… 그랬더니 조용해지더군.' (양영순의 『천일야화』5권 p.58)

위의 독백은 두 대신이 선왕의 동생 샤 다드와 역모를 위해 내통하는 편지증거와 대장군이 빼돌린 화첩 등 중대한 문제들과 부딪히자 샤 리야르가 혼자 중얼거린 내용이다. 그는 이 독백 후 밤중에 대신들을 소집하고 역모의 편지를 쓴 대신 중 한 명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린다.

본문을 볼 때, 샤 리야르의 분노가 왕비의 상대자에게로 집중되지 않고 왕국에서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성을 잃게 한 것은 왕비의 직접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자신이 비웃음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균형 잡힌 성격이었던 샤 리야르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왕비사건 이전에 이미 그의 내면이 계속해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선왕께서… 선왕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짓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위의 독백 직전에 왕이 총리대신에게 한 말이다. 샤 리야르의 아버지인 선왕은 개국을 이룬 왕이며[22], 동방, '말에서 내리지 않는 자들'의 땅을 빼앗고[23], 무차별 학살을 감행한[24] 강

22) 『천일야화』5권 p.78 참조.

력한 왕이었다. 샤 리야르의 문제는 아버지인 선왕이 그의 매개자이며 모델로서 선망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귀속시키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래는 샤 리야르의 심층적인 욕망구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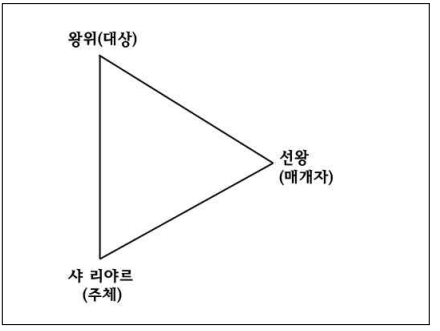

표 2. 샤 리야르의 심층적 욕망구조

선왕에 대한 샤 리야르의 이와같은 선망과 비교의식이라는 심리상태는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암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샤 리야르의 꿈[25]이다.

왕은 책을 읽고 있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이어진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간다. 알 수 없는 지하에 도달했을 때, 바닥에는 피가 고여 있었고, 창살 안에는 눈과 입이 꿰메진 죄수들이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있다가 샤 리야르 왕이 오자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며 다가온다. 이를 피하려던 샤 리야르는 급히 출입구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거대한 아기가 공중에 메달려 있는 것을 본다. 얼굴에 금이 가 있는 기괴한 아기의 얼굴이 드디어 열리자 샤 리야르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비명과 함께 꿈에서 깬 왕은 곧 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여인을 처형하도록 심복들에게 넘긴다. 이는 샤 리야르가 무능력하고 무

23) 『천일야화』 6권 p. 171.
24) 『천일야화』 6권 p.210.
25) 『천일야화』 1권, pp.18-25.

기력한, 아기와 같이 미숙한 자신과 대면할 때마다 배신한 왕비에게 혹은 여성 전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 꿈은 5권과 6권에서 각각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5권에서는 여전히 비극이긴 해도 아기의 모습에서 조금은 성장한 자신을 바라보게 된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고, 드디어 6권의 최종적인 꿈에서는 자신이면서 자신이 아닌 존재, 아들을 만나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속선이 드러나는 꿈의 전개방향을 볼 때, 첫 꿈에서 자신이 아기로 상징된 것은 선왕에 비하여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그같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특별히 아버지인 선왕과 샤 리야르의 대결구도는 삼촌인 샤 다드가 샤 리야르의 왕국 내 개국공신들과 계속해서 역적모의로 관계되는 것에서도 노출된다. 원작에서 샤 다드는 샤 리야르와 우애가 돈독한 동생이며 완전한 손아래 존재이기 때문이다. 샤 리야르는 선왕의 위업과 강한 세력을 이룬 대신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잔혹하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다가 파멸하는 악순환의 고리 안에 있었던 것이다. 아래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샤 리야르왕의 선언이다.

> “아버지, 위대한 선왕의 염원이자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꿈… 반드시…언젠가는 반드시 동방정벌을 이루고야 말테다! (『천일야화』6권 p.188)

양영순은 샤 리야르의 숨겨진 매개자로 선왕을 설정해 둠으로써, 선량한 왕에서 처녀들을 살해하는 폭군으로 전락한 모습의 내적구조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려 했다. 샤 리야르가 스스로의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덮고 있었던 욕망구조가 세라쟈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해소되고 스스로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 『천일야화』의 주요 뼈대를 이룬다.

III. 천일야화의 갈등해소 과정 ; 다섯 에피소드의 의미 분석

『천일야화』에서 세라쟈드는 이야기 요법을 통해 다섯 개의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원작이 주요 이야기 180편과 짧은 이야기

108편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간결화 되었는데, 각 에피소드는 샤 리야르가 이야기를 겪으며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짜여졌다. 다섯 에피소드의 공통적인 소재는 '마음'과 '폭력'으로, 주로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섯 에피소드는 '이야기 요법'이라는 설정을 통해 힘 있게 전달되는데, '이야기 요법'이란 최면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실제로 그 상황을 보는 것처럼 만드는 요법이라는 작가의 독특한 아이디어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 '첫날밤의 맹세'[26]는 조급한 행동과 맹세로 인해 가장 소중한 세 딸을 빼앗긴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이야기 속의 마신[27]이나 마신 사냥꾼[28]과 같이 딸들을 희생시키던 샤 리야르가 아버지의 애달픈 심정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겪는다.

두 번째 에피소드 '아무도 이 섬을 벗어날 수 없다'에서는 복수의 깊이, 사랑의 깊이에 대하여 체험하게 된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겹겹이 쌓인 복수관계와 자발적인 희생의 사랑이 대조되어 나온다. 조카와 동생을 죽인 마신에게 복수하려는 인어족들

---

26) 원작의 '상인과 이프리트 이야기'를 변형한 에피소드이다. '상인이 뱉은 대추씨에 이프리트의 아들이 죽자 그는 분기충천하여 상인을 죽이려 했다. 그러나 상인이 여생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청하자 1년의 여유를 준다. 1년 후에 다시 만나서 이프리트가 상인을 죽이려는 순간에 세 노인이 나타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인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자 그들의 제안을 순순히 수용하고 결국 상인을 살려준다.' - 이동은, 「『천일야화』의 신이담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Vo..28.No.1. pp.313~346, 2007. pp321~322.

27) 원작에 나오는 초자연체들의 유형분류는 진, 이프리트, 마리드, 굴, 이블리스 등이 있다. 진은 알라가 연기가 나지 않는 불로 인간보다 먼저 창조했다고 전해진다. 진은 이프리트, 마리드, 굴 등을 포괄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다. 이프리트는 진의 한 종류로 거칠고 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마신으로 해석되고, 마리드는 진의 일종으로 몸체가 크고 힘이 세서 초자연체 세계에서 문지기 역할을 많이 한다. 굴은 초자연체 중에서 매우 사악하고 잔인하며 사람까지 잡아먹는 존재라서 악귀 혹은 식인귀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블리스는 오만하고 불같은 성격으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이지만, 이야기에 매우 드물게 등장한다. - 이동은, 위의 논문, pp.340~341 참조.
양영순의 『천일야화』에서는 초자연체들을 '마신'일 통칭하고 있으며, 하급마신, 상급마신, 최고 계열 마신으로 구분하고 있다. - 『천일야화』5권, pp.208~209 참조.

28) 마신사냥꾼은 『천일야화』의 독특한 설정으로, 인간과 마신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식을 낳지 못하며 대부분 방탕하게 산다고 한다. 마신과 관련된 일체의 일을 맡아서 수수료를 받는 마신 전문가들이다.

과, 죽임당한 아들들의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을 노파의 복수가 '에고'를 위한 것이라면, 인간성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타자, 마신 마고의 선택은 자신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을 보여준다. 마신 마고는 말할 수 없는 소녀 아즈릴의 목소리와 이름을 듣고 마음의 공감을 나누었고, 복수자가 없기 때문에 동네북으로 희생양이 되어왔던 농아소녀 아즈릴의 방패가 되어주었다.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왕은 샤 리야르의 명랑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샤 리야르는 위험 앞에도 거침없는 이야기속의 왕을 보며 아버지인 선왕의 생각을 했다가[29] 마신의 공포 앞에 기가 죽은 왕의 모습에는 크게 실망하는 모습[30]을 보인다. 명분이 약해진 복수를 일삼았던 샤 리야르가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짜여진 이야기인데 이 에피소드가 끝난 후, 샤 리야르는 신사적인 가면 뒤에 본심을 숨긴다.

세 번째 에피소드 '마도서의 저주,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한다'에서는 왕비가 마신인 궁중악사에게 빠져서 왕을 배반하는 보다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야기의 무게중심은 이들이 아니라 어릴적 왕의 친구이자 왕비를 사모하고 있는 '자무시'와 그의 호위무사 '카이'에 쏠려있다. 자무시는 천진한 인물로, 왕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어린 시절부터 사모했던 왕비와 시간 가지기를 기대하고 왔다가 왕비의 마음이 분명한 것 같다며 그냥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다가 음모에 대한 약간의 내막을 알게 되어 반은 해결하고 반은 오히려 속아서 친구인 왕을 스스로의 손으로 불태운다. 최후에는 마신인 흡혈귀와의 피의 유대로 왕비와 여 호위무사 카이 둘 다 죽을 지경에 빠지고 자무시가 이 중 한 사람만을 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우유부단할 때 카이가 왕비를 살리라며 스스로를 찔러 죽는다. 자무시는 이 일을 통해 카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고, 자신을 향한 카이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다.

에피소드의 중심인물인 자무시에게는 왕과 왕비에 대해 욕망의 구조가 있다.

---

29) 『천일야화』 2권 p.76참조
30) 『천일야화』 2권 p.147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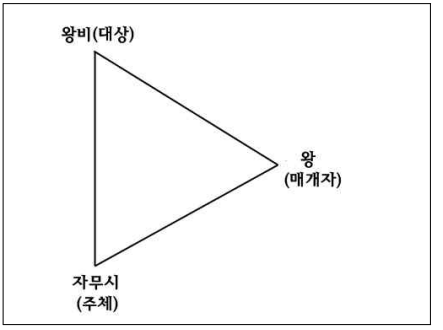

표 3. 자무시의 욕망구조

자무시는 왕에 대하여 비록 친구이지만 감히 대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있다. 이처럼 주체가 매개자에 자기 세계 밖의 존재, 즉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르네 지라르는 '외적매개(médiation extreme)'라고 명명한다.[31] 외적매개의 경우 극단적인 감정으로 치닫게 되는 내적매개와는 달리, 놀이와 흡사하여 실패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자무시는 왕비를 분명히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기이한 일면을 드러낸다.

르네 지라르가 욕망의 구조를 통해 밝히는 것은 주체가 자기로부터 비롯된 욕망으로 대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자, 즉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의 욕망을 모방하여 추구하면서 자신이 원했던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자무시가 자신의 거짓된 감정에 메여있는 동안 카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 이러한 일면을 나타낸다.

샤 리야르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외재적 매개관계를 이룬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왕위를 가진 자로써 자무시에 비해 매개자와의 차이가 줄어들어 갈등이 강화되어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이 쌓여 온데다, 이것이 왕비의 사건을 통해 더욱 악화된 만큼 갈등의 강도도 더 강해진 경우이다. 자무시의 에피소드는 샤 리야르에게 거짓된 감정에 속지 말고,

31) 윤종범, 「르네 지라르의 문학비평 연구」, 어문학연구 vol.5,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pp.347-398, 1997년.

진정한 가치를 가진 대상을 찾도록 촉구한다.

네 번째 에피소드 '하렘의 여왕을 기억하라' 는 샤 리야르의 자기발견을 돕는 중요한 이야기이다. 이 네 번째 에피소드에 이르러 이야기는 '지하하렘' 의 어두운 세계에서 진행된다. 이전까지의 이야기에서는 마신이 이질적이고 인간에 비해 강력한 존재로 등장했는데, 지하하렘은 이러한 마신조차 인간의 탐욕대로 몸에 흡수하여 이용하는 무시무시한 인간들의 세계이며,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뫼비우스 띠와 같이 뒤틀려서 맞물린 기괴한 세계, 차이가 사라지는 혼돈한 공간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격투사 쥬나이드는 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무리한 노역으로 중병을 얻은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살인청부를 맡았다. 이후 검투사로 거칠게 살아가다가 하렘의 여인 냐자리나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그 더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하렘의 주인인 검은 칼리프에게 냐자리나의 몸값을 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어느 날 냐자리나가 사라졌다. 그는 냐자리나를 찾아 마신에게 먹힐 위험을 무릅쓰고 마신을 몸에 불러들이기까지 했으나, 검은 칼리프의 더욱 강력한 부하에 의해 지옥같은 마신굴에 빠진다. 시공간이 왜곡된 그곳에서 쥬나이드는 자신이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냐자리나의 아버지였다는 것과, 냐자리나가 맛보게 해준 사랑은 그녀의 최강의 복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약해보였던 냐자리나야말로 하렘의 최고 수장으로 강력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최후로 쥬나이드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했던 청부살인으로 인해 그만은 더러운 굴레에서 벗어나라던 어머니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며 자신의 몸에 불러들였던 마신에게 먹혀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샤 리야르는 하렘의 여제 냐자리나를 통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왕비를 떠올리게 되고, 한동안 꾸지 않았던 악몽을 다시 꾸게 되었다. 그러나 예전에 눈과 입이 꿰메졌던 감옥 안의 사람들은 족쇄가 여전하긴 해도 이제는 꿰메진 곳이 없고, 예전 천정에 메여있던 거대한 아기도 없이 샤리야르 왕 자신이 핏물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있다. 핏물에서는 이제까지 희생되었던 여인들의 머리가 떠올라 일제히 눈을 뜨고 샤 리야르를 바라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차가운 눈초리의 왕비의 머리가

떠오른다. 왕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세라쟈드를 찾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왕은 아직 꿈 자체를 대면하기가 어렵지만,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내면이 회복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 에피소드는 왕에게 있을 정상적인 죄책감을 깨워주는 이야기이며, 냐자리나나 왕비 등 그가 책임을 전가시켰던 여성들의 문제 이전에 자신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 검투사 쥬나이드가 자신을 속인 냐자리나를 증오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동기 유발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왕은 차이가 소멸된 하렘의 이야기를 통해 하류인생의 쥬나이드가 되고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인 에피소드인 '마신 사냥꾼의 눈물'은 왕의 삼촌을 등에 지고 역모를 일으킨 대신들에 의해 샤 리야르가 세라자드 자매와 옥에 갇힌 상태에서 듣게 된다. 이때의 샤리야르는 자신의 실존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 "그… 그래… 네 말이 옳다! 이… 이런다고 달리자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정말이지 지금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구나.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거지? 그래. 애초부터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 감정에 휘말려 무고한 백성들이나 해치는 나약한…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작은아버지는 후환 때문에 날 없애려 들 거야! 이곳에서 도망쳐 나간대도 내게 딸자식을 잃은 자들이… 난… 난 결국 외톨이로 죽게 되는 걸까…?" (『천일야화』 5권 p.116)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두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눈앞의 이익이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해치우는 마신 사냥꾼 유진은 어느 날 감찰반장의 쌍둥이 형 '유도'도 그런 식으로 죽여 버린 탓에 붙잡혀서 감찰반장 '구도'에 의해 붉은 집으로 이송되게 된다. 감찰반장은 도주위험을 막기 위해 유진의 목에 우로보로스라는 마신종 뱀을 염을 걸어서 채웠는데, 이 때문에 그와 생명이 결탁된 유진은 동료의 배신으로 독에 중독된 감찰반장을 업고 3일 밤낮을 달려서 '싹이 트는 마을'에 만초라는 목수 선생을 찾아간다.

만초선생은 『천일야화』만의 독특한 설정인 최고위 마신계열인 '선생'으로, 마을의 성자이며 예수와 부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이다. 만초의 집에서 유진은 자신이 마신역병을 퇴치하기 위해 금단의 술법으로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전사 ' 마라이카 '였다는 것과, 마라이카인 자신이 폐기되지 않고 존재한 것은 그를 위해 희생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쌍둥이 형제 ' 지브릴 '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유진의 지브릴인 카마르는 곧 죽지만, 감찰반장인 구도는 생명을 다해 유진을 지켜주고 싶어 했던 카마르에게서 자신의 형 유도의 모습을 보고, 만초 선생을 통해 마라이카의 주술을 자신의 마신뱀 부리는 능력과 조합하여 원수인 유진을 위하여 날마다 주문을 외워주는 일을 맡는다.

자신의 과오 때문에 외롭게 혼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자기발견을 한 샤 리야르에게 악한인 유진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주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자신의 주변에서 한결같이 있어 준 존재인 대장군(세라자드의 아버지)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 때에 대장군이 감옥에 갇힌 그를 구하러 왔고, 세라쟈드 자매가 대장군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면서 왕은 자신이 유진과 같은 미친 망나니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과 대장군의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깨닫게 된다. 그 때에서야 그는 다시 한 번 백성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게 된다.

샤 리야르의 완전한 회복은 그의 세 번째 꿈에 잘 드러나는데, 그 꿈에서는 감옥에 갇혔던 이들이 모두 해방되고 없으며, 피로 찼던 바닥이 깨끗하고, 아래로 내려갔던 샤 리야르가 위로 올라가 문을 열고 발코니에 있는 또 다른 자신, 곧 자신의 아들을 만난다.

샤 리야르가 왜곡된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에는 앞서 말한 대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이가 실제로 경험하는 효과를 지닌 '이야기 요법'이 사용되었다. 가공된 각 이야기에서 샤 리야르는 여인을 죽이는 왕에서 딸들을 잃는 아버지로의 급격한 전환 이후에, 차이가 지워진 '짝패(double)'로서 왕으로, 왕의 친구로, 하렘의 밑바닥 인생으로, 저열한 마신 사냥꾼 등을 경험하며 서서히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었다.

IV. 결론 : 희생제의적 비극이 주는 카타르시스 효과

아라비안나이트의 원작에서는 결말에서 세라자드가 온전한 왕비로 인정받으면서 해피엔드로 끝난다. 그러나 『천일야화』에서는 샤 리야르가 국내의 모반세력과 전쟁을 치루고, 이 때 침입해 들어온 동방의 '말에서 내리지 않는 자들'과의 전투에서 져서 잘린 머리로 돌아온다. 세라쟈드는 그녀의 몽학선생이었던 이맘의 소개에 따라 동방의 국모가 되고, 그녀가 가졌던 샤 리야르의 아들은 동방을 통일한 황제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문제적 인물은 제거되고, 사랑의 결실은 남아서 꿈을 이룬다. 이 결말을 이루게 한 내적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작가가 이러한 결말을 선택한 것은 양영순의『천일야화』가 원작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은[32] '부정성(Negativity)'의 힘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왕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에 기인한다. 왕의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본다면, 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처녀를 날마다 죽였던 왕이라도 행복한 결말을 세라자드에게 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절대주의(absolutism)를 지나 국가주의도 해체하는 무정부주의까지 접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일 여인들을 살해하는 샤 리야르의 행동은 왕의 우월한 특수성에서가 아닌 보편적 인간이라는 동일 차원에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샤 리야르의 경우는 권력을 남용하는 연쇄살인범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32) 물론 원작에도 부정성이 없지는 않다.
『천일야화』가 최종 집필된 시대는 맘룩조 시대로, 당시의 아랍문화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맘룩조 시대는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시대였으며, 흑사병이 퍼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던 시대이고, 맘루크 간의 세력다툼이 극심하여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걷어 들이던 시대였다. 맘룩조 단계에 속하는 『천일야화』작품들이 도둑과 속임수, 그리고 도시의 건달들에 관한 소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 이상미, "『천일야화』에 나타난 기층문화 연구", 고려대학교 응용언어문화학 협동과정 문화콘텐츠학 석사학위논문(2011), p.3 참조.
그러나 절대적인 신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인 세계관의 영향으로 부정성에 대한 명료한 인식보다는 현실을 떠나 환상적인 이야기로 도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작가는 샤 리야르가 현대인들에게, 특히 현 세대의 한국인들에게 공감을 주는 지점을 구성하여 샤 리야르에 대한 문제의식을 역동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앞에서 모방욕망이론에 근거해 밝힌 바대로, 샤 리야르가 연속적인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왕비의 불륜에 대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선망과 열등의식이 왕비의 불륜으로 인해 패배의식으로 접어들면서 절망이 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와 6·25의 참사를 거쳐 세계 7대 수출국[33]이 된 한국의 모습은 자수성가한 아버지, 혹은 새 왕조를 연 아버지의 모습과 겹친다. 그러나 88만원 세대의 무기력한 현실을 겪는 현세대는 특별한 잘못 없이 무능력의 수렁에 빠져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왕, 샤 리야르에게 공감할 수 있다.

주인공에게 '비극적 결함'을 만들며 동시에 '우리와 유사한 존재'로의 공감을 형성하는 이러한 접근 안에서, 『천일야화』는 폭력과 무질서와 악과 이질적 타자인 마신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순수하고 영웅적인 사랑을 말하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하는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선과 악, 사랑과 폭력 등이 이분법적 대립항으로서가 아닌 뗄 수 없는 짝패(double)요 미분화된 에너지로 그려짐으로써 작품의 긴장도를 높였다. 그런데 작품이 완결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분화된 역동적인 에너지로서의 내용이 정리되고 해소될 필요가 있다. 행복하게만 끝난다면 끌어들인 부정성을 너무 가볍게 다룬 것이 되어 진정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회적으로 발생한 부정성을 해소하는 인류의 오래된 방법에 대한 통찰이다. 그는 문화인류학적인 자료들과 신화, 그리고 그리스의 비극 등에서 실제로 희생물을 처형했던 초석적인 집단폭력의 흔적을 찾으면서,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집단 폭력의 반복 대신에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연극이 일종의 제의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정화되는 양상을 보았다. 대표적인 비극작품의 예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외디푸스 대왕》[34]이다.

---

33) 유주영 기자, "한국 세계 수출국 순위 7위 유지-WTO", 인터넷신문 NEWSPIM, 2011년 6월 21일,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0621000213.

외디푸스가 의지적으로 한 일은 아니었지만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을 때, 테베에 페스트가 몰아쳤다. 신탁은 이 재난이 전염성이 강한 '암살자' 때문이라고 전하고, 이 암살자를 제거할 때 페스트가 그칠 것이라 한다. 이처럼 위기 유발자를 제거하므로 공동체의 평화를 되찾는다는 것이 곧 전체를 위해 하나를 희생시키는 희생양 매커니즘의 논리이다.[35] 『천일야화』에서도 샤 리야르가 일으킨 불의는 제국의 내분을 일으키고, 이러한 위기와 불안정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 자'들의 침입으로 극대화된다. 이 이야기를 보는 이들도 이야기의 문제와 실제 문제간의 간극은 사라지고 위기감이 고취된다.

공동체가 느끼는 위기와 갈등을 소멸하기 위한 희생물은 모두와 닮아야하고, 동시에 모두와 구별될 수 있을 만큼 달라야 한다. 샤 리야르는 바로 이러한 존재로서 작품이 담고 갔던 모든 부정성의 무게를 짊어지고 죽었다. 르네 지라르는 카타르시스의 원래 어원인 카타르마가 원래 희생제의의 인간제물을 지칭하며, 해로운 것을 토해내게 하는 강력한 약이기도 한 것에서, 카타르시스란 희생제의가 사라진 세계에서 비극을 통해 부정성을 뱉어내고 정화시키는 효과라고 보았다.[36] 『천일야화』는 희생제의의 비밀을 품은 비극이 카타르시스 효과를 줄 수 있었듯이, 고대의 이야기에 현대의 세계에서 감지한 부정성을 담아 유사 희생제의적 성격을 가지므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작품이 되었다.

세라자드가 동방의 국모가 되고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무능력과 폭력의 비극[37]을 극복할 긍정적인 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정성과 대비하여 작품의 또 다른 한 축이 되어 주었던 순수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지혜의 결말이 선명하게

---

34) 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 · 박무호 역, 위의 책, 민음사, 2009. pp.105~135.

35) 이 때 위기 유발자와 사건간의 논리적 개연성이 무시되거나 인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의 특징이다. - 김모세, 위의 책, p.183.

36) 김모세, 위의 책, pp.225~229.

37) 비평가 노스럽 프라이에 의하면 《외디푸스 왕》은 '방향감각의 상실과 지식 결여의 비극'을 대표한다. 『천일야화』는 샤 리야르를 통해 이와 동일한 성격의 비극이 진행되고, 세라자드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사랑과 지혜를 보여준다. - 노스럽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6, p.460 참조.

부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양영순의 『천일야화』는 고대의 작품에 현대적 부정성을 불어넣어 역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주는 비극의 감성과 고전적이고 안정적인 결론을 동시에 함축한 작품으로 거듭났다.

참고문헌

김모세 저, 『르네 지라르 ;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2008.

르네 지라르 저, 김치수 · 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르네 지라르, 김진식 ·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9.

이승진 외, 『독일문학의 모티브 DB구축』, 공감, 2010.

노스럽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6.

권택영, 「한국문화에 나타난 우울증과 폭력 : 최근 서사를 중심으로」, 『Oughtopia Source』 v.22 no.1(2007).

윤종범, 「르네 지라르의 문학비평 연구」, 어문학연구 vol.5,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이동은, 「『천일야화』의 신이담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Vo..28.No.1. pp.313~346 (2007).

백은지, “웹툰 만화연출 연구”, 상명대학교 만화영상학과 석사논문(2009).

김봉례, “『천일야화』의 이야기 형식과 서술구조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아랍이슬람학과 석사논문(2000).

이상미, “『천일야화』에 나타난 기층문화 연구”, 고려대학교 응용언어문화학 협동과정 문화콘텐츠학 석사학위논문(2011).

정형모 기자, “새 작품 ‘천일야화’ 출간한 만화가 양영순”, 『중앙일보』, 2006년 11월 13일.

장상용 기자, “천일야화, 21세기판 아라비안나이트”, 『일간스포츠』, 2006년 11월 24일.

유주영 기자, “한국 세계 수출국 순위 7위 유지-WTO”, 인터넷신문 NEWSPIM, 2011년 6월 21일,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10621000213.

양영순, 『양영순의 천일야화 (1-6권)』, 김영사, 2006.

ABSTRACT

Analysis of Yang, Youngsun's 1001 on the viewpoint of René Girard

Chang, Eunyoung

Yang, Youngsun's 1001 has been a monumental "Web-toon" work optimized in Web Environment. This paper has intended to explain semantics of 1001 (reconstructed works of the Arabian Nights) by mimesis theory of desires and scapegoat mechanism of René Girard; Shahriah, the protagonist, had been hurt by Queen's affair, but in the depth of his mind, he had suffered the problem of injured self-esteem by his model, father. However, Shahriah's mind had been recovered slowly by story therapy of Sheherezade. Sheherezade's story therapy had made up by contrasting states, violence and sacrificial love. In the very end, Shariah had solved all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Negativities by accepting his fate.

Key Word : Yang, Youngsun, 1001, René Girard, theory of desires, scapegoat mechanism

장은영
공주대학교 만화학과 박사과정
(110-52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88-4
Tel : 010-2895-1728
mitotol@naver.com

논문투고일 : 2011.11.15
심사종료일 : 2011.11.30
게재확정일 : 2011.12.15